

CNN 인터뷰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미국 뉴스전문채널 CNN과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는 오전 9시30분(한국시각)부터 30분간 `토크 아시아(Talk Asi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됐으며 8~9일 이틀간 4차례에 걸쳐 전 세계에 녹화 방송된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조금 이상한 사람일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항상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갖는 것이 부정확한 예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직선적으로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느끼거나 또는 분위기를 딱딱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할 줄 알고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화술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직선적으로 얘기하지만 공격적으로 얘기하거나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분위기를

배려할 줄 알고, 경청하고, 때때로는 유머도 사용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또한 호감을 느끼게도 행동합니다.”

- 협상가로서 김정일 위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주장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속임수가 있다든지 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물론 강하게 자기주장을 했다가 갑자기 철회하는 것이 어떤 전략적인 코스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주장을 할 때는 하고 양보할 때는 확실하게 양보하고 협상 자체에 유연성을 가진 그런 협상가 아닌가,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은 상대방으로 느꼈습니다.”

군사분계선 넘을 때 새 길 여는 행사되길 기원

- 군사 분계선을 도보로 걸어서 넘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한국 측에서 선물로 준비한 한국영화 DVD 세트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한국 영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제 넘어갈 때는 미리 다 준비된 얘기고 또 주변 환경에 대해 긴장해 있어서 그 순간의 감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강하지는 않았습시다만, 마음속에는 이게 1회적인 행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그런 한 과정이 되기를, 나 혼자만 건너가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여는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다음에 DVD 얘기인데, 그것은 사실 선물 고르는 과정에서 이런 선물을

준비한다고 하길래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만 대답했고, 누가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쪽 제목들을 훑어보면서 상당히 호기심을 보여 주기도 하고, 또 직접 아주 좋은 물건들을 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도 했습니다. 본시 영화에 조예가 있다고 진심으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북핵 문제는 그렇게 심도 있게 중점적으로 다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지요. 나는 오랫동안 북핵 문제에 관한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 가지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한다는 상황만 조성되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와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절대 불신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 하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북한의 우라늄입니다. 북한이 우라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일이 없지만,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 일도 없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나는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우라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 그렇다면 북한이 6자회담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큰 틀에서 접근하면 북핵 해결 못할 절차 없어

“그 부분에 관해 내가 너무 세세하게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얘기에 빠져서, 프로세스에 빠져서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큰 틀에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서로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그런 큰 틀에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한 가지 한 가지 썰어 가지고 ‘이거 할 것 같으냐? 이거 사실이냐? 어떻게 할 거 같으냐?’ 이렇게 쪼어나가면 문제 해결의 큰 길을 놓쳐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추가해서 얘기하면, 그동안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큰 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 그리고 이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요. 문제가 풀리는 것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쪼개 가지고 매 절차마다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그 질문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북한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쪼개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나도 극복하지 못할 절차가 없습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입니다.”

- 주제를 조금 바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셨을 때 대통령이 반미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가장 논쟁이 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이렇게 문제가 된 이슈를 하나 뽑으라면 어떤 것을 뽑으시겠습니까?

“반미 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왜곡되거나 또는 과장된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나는 바람에 한·미 관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현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고 합리주의자이다’ 라는 점을 해명하고 설득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부시 대통령과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달랐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하자면 참여정부가 출발할 때 부시 대통령과 우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북핵 문제가 하나였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 중에는 보다 더 강경한 수단, 말하자면 모든 옵션들을 항상 고려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해 왔고, 그러나 우리 한국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옵션들이었거든요.”

- 전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꼭 전쟁만이 아니라 무력의 행사라든지 또는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제재라든지 말하자면 이와 같은 강제 진압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미국이 진심으로 모든 수단을 고려했는지 아니면 협상 전략에 필요해서 모든 수단을 아마 거론 정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미국으로서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미관계 과거에도 중요했고 미래에도 중요

- 한·미간에 이견이 분명히 없었던 문제가 이라크 파병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파병은 어려운 결정이었고 또 이것을 연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한·미 관계는 과거에도 중요했고 미래에도 중요합니다. 때로 어두웠던 시절도 있고 또 아주 긴밀한 협력의 시절도 있었습시다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양국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특히 내 임기 초 시점은 한·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정부 간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세련되게 조율해 나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민감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간 협력 관계가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소위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한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시다. 말하자면 옳고 그름의 문제에 관해서 내가 명확한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미국 정부는 약간 섭섭하게 생각한 모양입니다만, 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면서 파병을 했으니까 국민들의 정서까지 거역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 한국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아프간에도 파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파병은 대통령님의 임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의 포인트가 되었는데, 23명의 젊은 기독교 신자들이 아프간에서 피랍이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생각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생각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딱 그런 일에 닥치는 순간 한참 동안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인 일이 아니어서 모든 가능성을 다 놓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참모들이 판단한 것은 다분히 직관적인 것이었지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면서부터 차근차근 풀어 갔고, 결과가 잘됐습시다만 지금 생각해도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것은 예측하거나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 다시 그러한 일을 겪는다고 가정해 볼 때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다르게 접근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리, 정말 미리 준비해 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의 사건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아주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은 국가가 말하자면 불법적인 그런 야만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협상할 수 있는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지요. 그것도 살짝 숨어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협상하자는 것이니까 그 협상에 응한다는 것이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프간 피랍 당시 절체절명의 과제는 국민 살리는 것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논리가 아니고 사람의 가치입니다. 어떤 종교적 의미에서 사람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그 현실을 거대한 가치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이 도덕적 실체가 불법적인 납치자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설 수밖에 없었지요. 어쨌든 결국 논리적인 해답은 얻지는 못했고, 그냥 그 시기에 ‘나는 우리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 그것만이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 당시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러한 것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국제기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아프간 피랍 사건 당시에 여기서 많은 회의를 하셨지요. 그 시기가 아주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 참모들과 비공식 회의에서 가닥을 잡지요. 전체적으로 큰 방향 같은 것은 이곳에서 결정됩니다.”

- (책상을 보며) 제가 볼 때는 이 책상에 서류가 많이 없습니다. 책상도 굉장히 새것처럼 보이는데요, 노트북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그것으로 업무를 처리하십니까?

“서류가 많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도 없네요. 옛날에는 여기에 다 있었는데, 요즘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여기 서류를 받아 놓고 검토하고 결재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게(노트북) 잘 작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일이 주로 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서류 검토나 결재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관저에서 합니다. 저녁 먹고도 하고, 마치고 돌아가서 휴식 좀 취한 다음에 다시 아주 화면이 큰 모니터 두 개짜리에 주로 합니다.” (대통령, 노트북을 켜서 작동함)

- 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건 내 취미 생활이지요? 취미 생활인데, 결국은 이것

이 업무가 돼 버렸지요.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e지원 프로그램을 보며) 이것이 오늘 내가 관저에서 처리 중에 있는 문서들의 목록이고, 내가 즉시 결정해서 내려줘야 되는 문서들은 ‘지시바란다’는 문서함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이니까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업무 보고로서 업무 보고함에 있고요,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보아 둘 만한 일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회의 안건이 올라와 있지요.”

- 보통 다른 대통령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에 뭔가 하시고 싶었던 동기라든가 달성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좋아할 일도 아니고 또 해야 하는 일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보통의 대통령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면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말하자면 업무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요. 우선 모든 의사소통이 이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수시로 비서실의 비서에게 전화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계속 그런 일도 없앨 수도 있고요.”

-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통령께서 청와대 내의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자리에서 이동)

“가면서 이야기할까요? (집무실의 희망돼지 장식을 바라보며) 이건 지난 선거 때 생긴 물건인데, 전체를 쌓아 놓으면 우리 키 높이보다 더 높게 되지요.”

- 이것들이 당시에 정말 사용되었던 희망돼지 저금통들입니까?

“예, 그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채워서 그렇게 보내 준 돼지들이지요. 실제로 분량이 이렇게 바닥에 쌓으면 수북하게 사람 키만큼이나 쌓일 만큼 많았습니다. (메달을 가리키며) 이거는 자기 직장에서 받았다는 10년 근속메달을 선물로 보낸 것인데, 돈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기념으로 이렇게… (우편 통상환을 가리키며) 이걸 우편 통상환입니다. 몇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지요.”

-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안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탄핵 당시에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이 편지 사연들을 위안 또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경계로 삼고자 하는 뜻으로 갖다 놔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요. 탄핵 때도 이 사람들이 다 거리에 나와서 다시 내편을 들어 주고 지지해 줬으니까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 뽑아줬는데 탄핵이나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만감이 교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상적인 분위기로만 갖다놓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시기의 과정을 개인적으로도 뜻 깊은 일이지만,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임 후에는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 곧 이제 퇴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정치에서도 은퇴할 계획이신가요?

“한국에서 대통령 문화라는 것은, 대통령을 그만두는 것은 정치도 그만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만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내 희망으로는 자유인입니다. 옛날에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희망했던 것이, 되고 싶었던 것이 자유인이었으니까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뉴스를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

- 그 뉴스가 대통령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요.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나와 관계없는 뉴스가 거의 없지요. 모든 뉴스가 제 관심사, 그다음에 넓게 보면 내 책임의 범위 안에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뉴스 하나하나를 볼 때 편안하게 볼 수가 없지요. 이제 대통령 자리를 벗어나면 느낌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보는 뉴스하고 전혀 다른 느낌으로 뉴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좀 더 편안하게 뉴스를 본다는 것은 훨씬 편안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또 때때로 움직이고 싶을 때만 움직이고 그런 자유로움을 갖게 됐다는 것이 바로 ‘자유’ 이지요.”